



5면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 전주매일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음 4월 6일) 제350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 도전

전북자치도, 제3회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 전북 관광 설명회 열고 UN 세계관광기구 등과 교류·협력 물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0회 서울국제관광전'과 '제3회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에 참가해 전북 관광자원의 가치와 매력을 알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9~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관광전(KOTFA) 및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WTIC)에 참가해 관광홍보관 운영, B2B 거래블라스트 상담회 참가, 관광설명회 등 전북이 가진 관광자원을 알렸다.

특히 이번 행사와 연계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설명회'를 통해 오는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의 전북 유치 도전을 공식 선포하고 나서는 등 세계관광기구 등과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 기대를 모은다.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은 국내·외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여행사, 호텔 등 40여 개 국가, 300여 기관 및 업체 총 500여 부스 규모로 개최되며,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7개국 관광장관과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대표, 유엔세계관광기구(UN Tourism, 前 UNWTO 기구명 변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장이 참석하는 등 관광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 Tourism)가 올해 내건 국제관광전의 주제는 '미식여행을 맛보다'이다. 국내·외 여행지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음식, 체험활동 등 도시의 문화와 여행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국내·외 관광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시군, 문화관광재단, 관광협회,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협업체 홍보관을 꾸렸다.

시·군 대표축제와 관광자원, 특색있는 관광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국내외 협업체와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상담회와 다양한 관광 참여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끌어모았다.

특히 올해 전북자치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식관광을 비롯해 워케이션, 웰니스, 치유·의료관광 등 전북 고유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에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설명회를 열고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의 전북 유치 도전을 공식 선포하고 있다.

테마 여행 프로그램은 해외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전북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10일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설명회'에서는 전북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한옥, 한지, 태권도, 문화유산 등 전북의 매력을 소개해 각국 장·차관은 물론 국제기구의 주요인사, 국내·외 관광업계 전문가, 관계자 등 450여 명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오는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의 전북 유치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포하며, 포럼 전북 유치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유엔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의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세계미식관광포럼은 각국 음식문화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자리로 음식이 다양한 관광요소와 결합해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며, 재방문을 높이는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노어 아흐마드 하미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대표는 서한을 통해

"전북에서 추진하는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이 전북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활동과 인적교류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며, "세계미식관광포럼의 성공적인 유치를 바란다."고 했다.

해리 황 유엔세계관광기구(UN Tourism)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장도 서한을 통해 "미식관광이라는 주제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도 매우 시의적절하고, 문화융합, 인적교류, 평화 및 인류 공동 번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세계관광산업의 목표와 일치한다."며, "유엔세계관광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부는 전북의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160개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엔의 관광분야 국제기구인 '유엔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 70여 개국 1,000여 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전북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각국 장관을 비롯해 국제기구와 함께 각국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교류를 이어가기로 뜻을 한 데 모았다.

김 지사는 또한 도 홍보부스를 방문해 직접 전북 홍보대사 역할을 하며 현장 홍보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도내 여행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전북 관광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세계 미식관광포럼뿐만 아니라 양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총회와 지역·분과별 총회, 주제별 포럼과 세미나 등을 전북에 적극 유치해 도내 미시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전북은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특히, 맛의 수도라 불릴 정도로 음식문화가 잘 발달된 도시"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도전에 나선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 동학농민혁명 130년

## 더 나은 전북 열망 의지

정읍 황토현서 국가기념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맞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기려 역사적 경험을 계승해 더 나은 전북에 대한 열망에 의지를 다졌다.

올해로 제130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5월 11일)은 민족의 자주성과 평등을 추구했던 농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날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후기 사회와 정치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온 사건이자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 "새로운 사회 열망했던 역사적 경험 바탕으로 미래발전 계기 삼아야"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지난 2019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지정된 이후 매년 정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국가기념식이 엄수됐다. (관련사진 9면)

지난 11일 열린 기념식은 KBS에서 생중계한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과 전남, 광주 등 광역단체장과 정읍 시장 등 시군 단체장,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일반시민을 포함해 1,0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1894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열은 반봉건, 반외세의 깃발을 들고 한반도를 일으켜 세웠다. 전북 고부, 무장, 백산에서 시작한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염원이 충청도와 경상도, 강원도와 황해도까지 들불처럼 번져 보국안민, 자주 국가를 향한 애국애족 정신의 밑거름이 됐다.

부패한 조선왕조의 봉건체제와 농민에 대한 가혹한 수탈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민관협력 정신을 '집강소'를 통해 보여주었다. 또한 1894년 9월

삼례에서 시작된 2차 봉기를 통해 일본군의 경북공 점령에 항의하며 일본 군대와 맞서 싸운 반외세 저항운동의 출발로 평가받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차별 없는 상생의 나라, 상호 공존하는 평화의 나라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그 의미를 세계가 인정해 2023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등재된 기록물 185건 중 32%인 59건이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소장됐다.

전북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답게 2004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정읍 황토현에 건립해 전시, 교육, 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정신선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로운 사회를 바라고 열망했던 역사적 경험을 보유한 자치도로서 감응년, 동학농민군이 그렸던 것처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18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일어선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도시, 환경친화적인 생명 도시,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오늘을 풍채롭게 만들어 주는 힘으로 더 나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도내 각 시군은 물론,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5일 고창 무장기포제 기념식과 5월 1일 부안 백산대회 기념식이 개최됐으며, 이번 국가기념식 기간에는 정읍시 주최로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전주시는 6월 동학농민군 전주 임시 기념일에 맞춰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해 강원 흥천, 전남 순천·장흥, 충남 공주·태안 등에서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행사가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다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선생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꽃을 피웁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